

# 추가 발견 매몰자 2명 기존 실종자 신원 확인

### 27~28층서 탐색...겹겹이 쌓인 잔해로 구조 난항 유압 콘크리트 절단기 투입 등 측면 접근 방안 시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의 상층부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매몰자 2명의 신원이 사고 직후 실종된 공사 작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본부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 향후 상부층에 대한 보강작업 이후 중장비 투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8층, 이를 전인 25일 오후 27층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각각 발견된 매몰자 2명은 붕괴 당시 상층부에서 실내 공사를 했던 작업자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수본 등은 28층 매몰자의 손에서 지문을 확보해 신원을 파악했다.

구조대 손이 닿지 않는 27층 매몰자의 신원은 기다란 막대 형태 공구로 주변 콘크리트 잔해에서 혈흔을 채취해 실종자 가족들의 유전자 정보(DNA)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중수본 등은 가족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가족들 요청에 따라 매몰자 2명의 신원 정보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원을 확인한 매몰자 2명은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이다.

매몰자 2명이 발견된 27층과 28층은 붕괴 후 콘크리트 판상 구조물인 슬래브 등 대형 잔해가 겹겹이 쌓여 있어 수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7층 매몰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상층부 벽체를 뚫고 잔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28층 매몰자를 추가로 발견할 정도로 구조를 위한 진입로 개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조당국은 유압 콘크리트 절단기 등 도시탐색장비를 투입해 발견 지점 주변 26~28층에서 잔해를 측면을 뚫어 접근하는 등 다양한 구조 방안을 시도 중이다.

이일 소방청 119 대응국장은 “생각지도 않았던 공간이 파악됐고, 내시경 카메라를 가지고 탐색하던 중 (추가 매몰자의) 신체 일부가 발견됐다”며

“잔해물을 걷어내고 지지대를 추가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지면 전문가의 의견을 정취한 뒤 중장비 투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붕괴사고 피해자는 3명으로 늘었다.

지난 11일 붕괴사고 발생 당시 연락이 끊긴 작업자는 6명이었다.

이들 6명은 28~31층 실내에서 창호·미장·소방설비 공사를 맡았던 작업자들이다.

첫 피해자는 붕괴 사흘째인 13일 오전 지하 1층에서 발견돼 이튿날 오후 수습 상태로 수습됐다.

구조 당국은 타워크레인 해체를 기점으로 실종자 찾기 거점을 붕괴가 이뤄진 아파트 상층부로 옮겨갔다.

24시간 휴무 없는 수색 체제가 타워크레인 해체를 마무리한 이후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신축 중이던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201동(지하 4층·지상 39층)에서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23~38층 16개 층 내부 구조물과 외벽 일부가 한꺼번에 붕괴했다. 첫 피해자 수습 이후 매몰자 2명의 구조와 남은 실종자 3명을 찾는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최환준 기자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된 27일 오후 바스켓에 올라탄 관계자들이 외벽 외아워 보강작업을 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4~4	흑산도	2~4
담양	-5~6	구례	-4~6
화순	-4~5	곡성	-5~5
영광	-3~3	완도	0~6
함평	-3~4	강진	-2~6
무안	-3~3	장흥	-3~6
영암	-3~5	해남	-3~4
진도	0~4	고흥	-2~7
신안	0~4	보성	-4~5

일출 07:35 일몰 17:56  
월출 03:30 월몰 13:34

목포	만조 10:26 22:30	여수	만조 05:53 17:50
	간조 02:58 16:13		간조 12:05 23:56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없이 131

### 아이파크 현장 온정 손길 잇따라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와 의료진 인력을 응원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 서구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고사리손으로 토박토박 눌러 쓴 손 편지와 함께 상자 하나가 전해졌다. 상자 안에는 편지와 함께 직접 만든 쿠키가 들어 있었다.

이외에도 사고현장 인근의 백화점을 비롯해 종교 단체와 금융기관, 식당, 동 주민자치회 등에서 생수와 라면 등 다양한 구호물품이 접수되고 있다.

초콜릿을 전달한 초등학생, 컵라면 4상자를 전달한 여학생, 피자 15판을 보낸 익명의 기부자도 있었다.

대구 달성군에서까지 시민 기부가 답지했으며 고려인 마을에서는 빵, 비타민, 꿀, 콜라를 보냈다.

예비 입주자들도 핫팩, 생수, 떡볶이 등을 수시로 전달하고 있다. /홍승현 기자

### 설날 ‘눈·비’...연휴기간 맑음

광주·전남지역은 설 연휴기간 동안 강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설 당일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떨어질 전망이다.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27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설 연휴 기간(1월 29~2월 2일) 기상 전망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29일부터 31일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영하 4도에서 0도·최고 영상 5~7도)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다. 설 당일인 다음달 1일에는 오전부터 광주·전남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홍승현 기자

# 사고 아파트 옆 203동도 붕괴위험

### 현산 “처짐 현상 내부보고, 정밀진단 후 보강 조치”

대형 붕괴사고가 일어난 광주 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의 다른 아파트 동도 위험한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다.

27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등에 따르면 최근 붕괴 건물 건너편에 있는 다른 동에서도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3동 피트(PIT·설비 공간) 층 천장 슬래브가 아래로 처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부 보고했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201동에서는 피트 층 천장(39층 바닥) 슬래브 공사를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지시대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크 플레이트(특수 거푸집)를 활용한 방식이었다.

데크 플레이트 공법은 다른 아파트

39층에도 마찬가지로 사용됐다.

사조위는 같은 공법을 사용한 다른 건물을 확인하기 위해 203동을 확인하던 중 39층 바닥 슬래브를 콘크리트로 타설한 데크 플레이트가 눈에 띄게 아래로 처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피트 층을 확인한 결과 지지대를 최소 설치한 데크가 완만하게 움푹 가라앉아 있는 장면이 분명히 보였다.

이를 두고 사조위는 “203동 39층 상부 데크 플레이트가 과도한 하중으로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하중은 데크 플레이트를 지지하고 있는 동바리로 이어지며 피트층 바닥으로 전달되고 있어 201동과 같은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둥이나 내력벽으로 전달돼야 하는 하중이 바닥 슬래브로 직접 전해지고 있는 탓에 이런 진단이 나왔다.

피트 층처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의 바닥은 통상 1㎡당 1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35cm 두께의 슬래브 무게를 버틸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조위 관계자는 “39층 슬래브의 무게가 25cm 두께로 만들어진 피트 층 바닥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HDC 현대산업개발 측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현산 측은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은 바 없다”면서도 해당 층을 확인한 결과 처짐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밀 측정기를 이용해 안정성 여부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강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홍승현 기자

### “하청업체가 한 일”...현산, 혐의 부인

#### 감리 등 재소환 조사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현산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현산 입건자 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현산 입건자들은 “하청업체가 임의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원청의 과실 연관성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지시대 절거는 현산이 지시한

일이다. 역보 설치한 현산과 혐의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라고 수사본부 측은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날 감리 2명을 추가 소환 조사하는 등 책임자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이어갔다. 이와 별도로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 재하도급 의혹 수사를 본격 진행한다.

전날 거푸집 공사 참여자들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날엔 철근 콘크리트 하청업체 대표를 소환 조사해 하도급 계약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www.dasco.kr

## 창조와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

다스코(주)는 흥익인간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고객이 감동**하며 **보람을 공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2023년 매출 5,000억원 목표

**SOC사업**

가드레일 / 교량난간 / 터널 방음벽 / 방음벽

**신재생 e.사업**

육상태양광 / 수상태양광

**건축자재사업**

합판탈형 데크플레이트 / 스틸 데크플레이트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WBM사업**

구조용 선조립 / 용접철근(WBM)  
BIM모델링

### 신기술 개발 선도업체 다스코가 4차산업을 주도하겠습니다.

본 사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로길 26-2 TEL. 061)370-2144   
 당진1공장 (데크플레이트)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361-15 TEL. 041)431-8200   
 영 남 지 사 부산시 동구 초량동 29 KCA빌딩 405호 TEL. 051)518-3702  
 서울지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9길 26 H비즈니스파크 C동 801호 TEL. 02)3440-7800   
 당진2공장 (단 열 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합덕산단1로 50 TEL. 041)431-8259   
 새만금공장 (WBM)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산 블럭 2로트  
**다스코 가족회사** | 다스코 | **썬에코(수상태양광)** | **세라코(점토벽돌, 외장재, 수처리)** | **가스코(가드레일, 교량난간)** | **스틸코(철근유통·가공)** | **학교법인흥인학원(영산중·고등학교)** | **흥인(부동산 임대업)**